



노란 풍선에 담긴 이화인의 목소리 4일 총학생회(총학)가 '이화를 바꾸는 더 큰 함성 크레센도(크레센도)' 참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 중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화인이 노란 풍선에 요구안을 적고 있다. 총학은 서명운동 목표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고 크레센도 기간을 10일(수)까지 연장했다. 최은별 기자 byeel2728@ewhain.net

인사이드

-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부 기준 초과 >>3면
- 학점이월제, 수업권 문제 다룬
상반기 제2차 협의회 >>5면
- 총학생회가 사라진다 >>10면
- 대학가 자유전공학부
폐지·전환 기로에 서다 >>11면
- 美 최초 한인 시장 특강 열려 >>14면
- 건강한 빵 만드는 빵벗 이야기 >>16면



대학생 논문 표절 의식 부족 ... 인식 개선 필요해

본교에 재학 중인 7씨는 몇 차례 문서매매 사이트에서 과제를 구입해 서문만 바꿔 제출했다. 7씨는 “과제가 급해서 문서거래 사이트를 통해 리포트를 구매해 서문만 바꿔 과제로 냈다”며 “표절이 들릴까 조마조마 했지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과제 점수는 평소보다 잘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문 표절 문제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스타강사부터 영화배우, 지난 해 9월 취임한 건국대 송희영 총장 등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대학 또한 논문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석·박사 논문 뿐만 아니라 학부생이 제출하는 리포트 또한 대협업체나 문서거래 사이트를 통해 ‘베끼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3일~4일 10개 단과대학 재

학생 404명을 대상으로 ‘이화인의 표절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표절 경험 ▲표절 교육 경험 ▲표절 예방 교육 필요성 ▲인용방법 아는 정도 등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 본교생은 표절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표절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9면).

또한, 학생들은 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리포트를 구입해 수정, 제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59명(14.6%)은 문서거래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명(45.7%)의 학생이 구입한 리포트를 그대로 혹은 수정해 제출한 경험이 있었다. 이

유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9명(33.3%)으로 가장 높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학은 자체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절과 전쟁에 나섰다. 본교는 사이캠퍼스 내에서 표절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대도 학습지원 전산 프로그램인 ‘블랙보드’를 도입해서 112개 강좌를 대상으로 과제물을 검사하도록 했다. 서울시립대는 표절 방지를 위해 ‘표절추방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학생은 위원회를 통해 표절 여부를 검사하고, 표절한 학생은 F학점을 받게 된다.

일부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한 표절 검사

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체 표절 적발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산대 조환규 교수(정보컴퓨터공학부)는 “학생의 과제물 양이 많고 표절 경로가 다양해 실제 적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과제물의 70%는 인터넷, 30%는 문서거래 사이트를 참고해 작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명대 김기태 교수(미디어창작과)는 “어렸을 때부터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며 “지식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존경과 예의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표절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yenny_park@ewhain.net

금주의 채플

무용채플
(안무 및 지도 : 김명숙 교수)

8일(월)	10시
9일(화)	10시
10일(수)	10시
10일(수)	11시30분
11일(목)	10시
11일(목)	11시30분
12일(금)	10시

의전원 채플
8일(월) 12시40분 양현혜 교목

알립니다

이대학보는 중간고사로 인해 3주 휴간합니다. 다음 호(1450호)는 5월6일 발행됩니다.

5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오픈식 열려

중앙도서관은 5일 오후3시 중앙도서관 1층 라운지에서 리모델링 오픈식을 열었다. 오픈식은 김선옥 총장, 신경식 기획처장, 신하운 학생처장, 이명휘 재무처장, 김남명 정보통신처장, 중앙도서관 장영민 도서관장 등을 비롯해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대 앙상블의 축하 연주, 테이프 커팅, 도서관 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축사에서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자 학교 내에서 핵심적인 곳”이라며 “이번 공사로 학생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도서관장은 “오늘날 대학 도서관은 고서의 보관, 열람부터 학습과 휴식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이러한 대학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5일 오후3시 중앙도서관 1층 라운지에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오픈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테이프 커팅을 하는 김남명 정보통신처장, 이명휘 재무처장, 최진호 부총장, 김선옥 총장, 장영민 도서관장, 목숙제 전 도서관장, 신경식 기획처장, 신하운 학생처장. 김나영 기자 nayoung1405@ewhain.net

이어 그는 “나무를 심듯 학생이 미래를 위해 뿌린 노력의 씨앗이 중앙도서관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무성하게 자라 꽃피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도서관은 겨울방학부터 열람실과 노트북실을 정비하는 등 약 두 달에 걸쳐 노후 된 시설을 보수했다.

조윤진 기자 koala0624@ewhain.net

2013학년도 제1학기 교양과목 중간시험 시간표(총괄)

시험시간	22일(월)	23일(화)	24일(수)
08:10~09:00			
09:10~10:00	연극의이론과실제(01)	동양미술의이해(01)	나눔리더십(01-16)
10:10~11:00	Essential English(01-16) 고급영어(01-07)	기독교와세계 (01,02,05,06,11,12,15-17)	기본스페인어(01-03) 스페인어(01-12)
11:10~12:00	중국어(01-19) 일본어(01-15)	가족건강과간호(01) 시민생활과법(03)	시민생활과법(04)
12:10~13:00	대학영어(01-93,98)	신화,상상력,문화(02)	기본독일어(01-04) 독일어(01-09)
13:10~14:00	서양미술의이해(01) 가족건강과간호(02)	동물의행동(01) 시민생활과법(01)	여성의건강과맞춤영양(01)
14:10~15:00	여성과예술(01)	기독교와세계 (03,04,07,08,10,14,18-21)	우리말과글쓰기(01-52)
15:10~16:00	기본중국어(01-07)	서양미술의이해(02) 서양음악의이해(02)	현대물리학과인간사회의변혁(01)
16:10~17:00	기본프랑스어(01-04) 프랑스어(01-17)	기본일본어(01-05)	대학생의성건강(01)
17:10~18:00	시민생활과법(02)		인간발달과가족(01,02)

* 교과목명 뒤의 ()는 분반표시임.
* 시험시간은 매시 10분부터 정각까지로 수업시간과 다르니 유의할 것.